

인천시 저출생 대응정책, 성평등의 눈으로 다시 보다



2025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특정성별영향평가, 이게 뭔가요?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만들 때,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정책의 혜택이 균형 있게 전달되는지를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 정책,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유리하지 않나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고 있나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진 않나요?

정책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과정이에요.



저출생 대응 정책, 왜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한쪽 성별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쏠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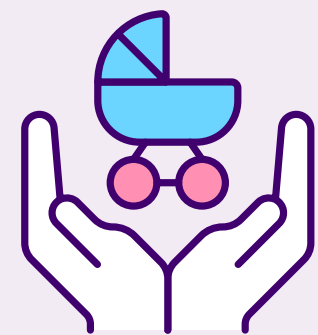
정책이 '출산율 높이기'에만
집중하면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결혼한 부부만
지원 대상이면

동거부부, 미혼부모,
한부모 가정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요.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고 싶어도

정책이 엄마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성평등한
돌봄은 어려워져요.

좋은 저출생 정책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특정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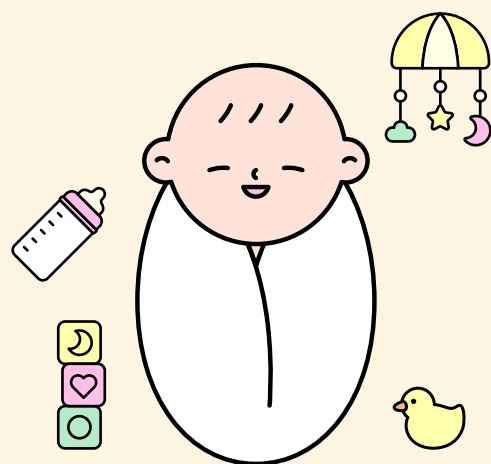
인천시 저출생 대응 정책, 어떤 게 있나요?

인천시는 지금 어떤 저출생 대응 정책을 하고 있을까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생부터 18세까지,
국가 지원 + 인천시 지원
총 1억 양육비 지원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미혼 남녀(24~39세) 대상
커플 만남 행사
연 5회, 회당 500명 규모



아이플러스 맺어드림 (나만의 결혼식)

예비부부 40쌍 대상
결혼 비용 10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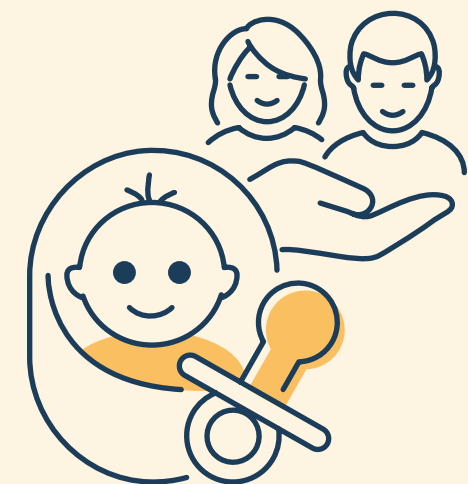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신혼·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하루 1,000원(월 3만원) 임대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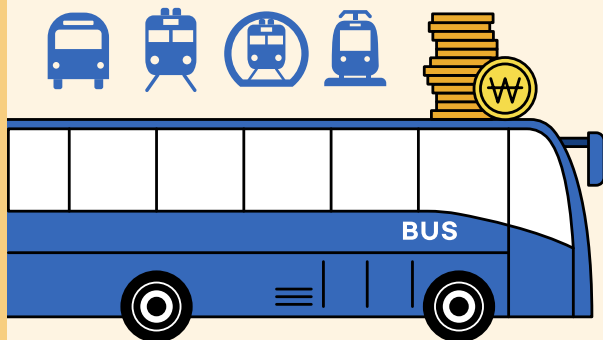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취약계층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5년 임산부 대상
교통비 포인트 지급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운영)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시
월 30~50만원(최대6~7개월)
지원



찾아가는 인구교육

인천 초·중·고생 및 시민 대상
결혼·출산 가치관 교육



인천여성가족재단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인천의 2030대 시민들은 결혼과 출산을 이렇게 생각해요



안정된 집이 없으면 아이 낳기가 무서워요.
천원주택 좋은데 물량이 너무 적어요.

— 30대 초반 여성



저는 출산보다 커리어가 걱정돼요.
아이를 낳으면 내 일은 어떻게 되나요?

— 20대 후반 여성



사실 결혼보다 동거가 현실적이에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요.

— 20대 후반 남성

**2030대 시민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경제, 주거, 돌봄 부담이 크기 때문이에요.**

좋은 정책이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책의 사각지대를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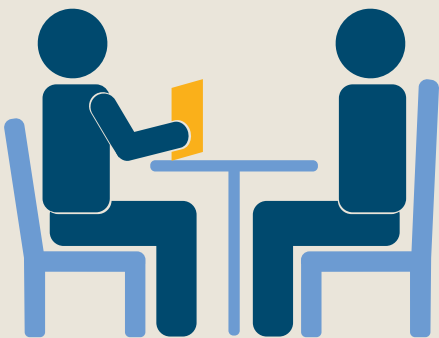


결혼은 안 했지만 함께 사는 커플이라면?

대부분의 임신·출산 지원은 법률혼 중심이에요.
비혼 상태에서 임신했다면 지원에서 빠질 수 있어요.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라면?

출산휴가 = 사실상 영업 중단이에요.
직장인에게 초점 맞춰진 지원 제도의 빈틈이 있어요.



유산을 경험한 부부라면?

심리 상담 지원이 주로 여성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요.
남성도 상담받으면 회복에 더 도움이 될거 같아요.

아빠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면?

장려금 지원이 일부 자치구에만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
그것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점검했어요.

01

정책 목표

출산을
인구를 늘리는
숫자 정책이 아닌
시민의
자기결정권으로
살펴보고 있는가?

02

재생산권 보장

임신과 출산의
시기와 방법을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03

생애주기별 접근

임신, 출산
시기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시민의
전 생애를
고려하는가?

04

성별 형평성

엄마뿐 아니라
아빠, 그리고
다양한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가?

05

서비스 접근성

지역, 계층,
가족 형태에 따라
정보와 혜택에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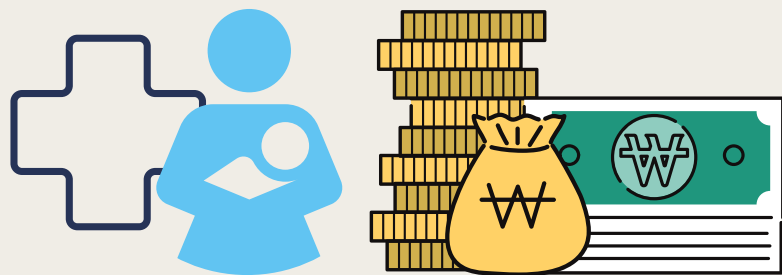


평가결과

인천시가 잘 하고 있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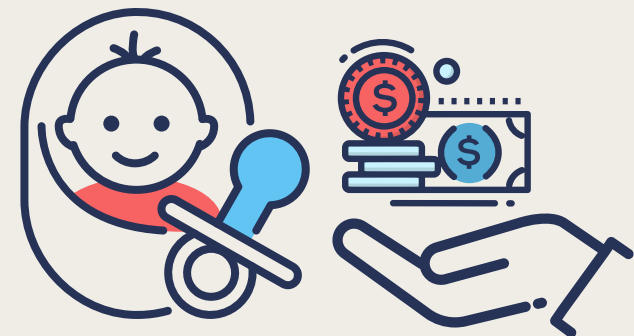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해요.
장애인·다문화·청소년 산모도 포함합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 좋은 사례예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일부 자치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직접적으로 장려해요.
돌봄이 엄마만의 일이 아님을
정책으로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임신 건강관리 지원(인천 중구)

임신을 준비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해요.
임신은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했어요.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해요.
취약한 상황의 시민을 먼저 챙기는 정책이에요.



1308 위기임산부상담

이미 잘하고 있는 정책도 있어요.
앞으로 더 확대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해요.



인천여성가족재단

평가결과

이런 정책은 바뀌나가야 해요



커플 매칭 행사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개인의 결혼 선택을 '인구 정책 목표'와 연결하면 결혼이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성평등한 연애·파트너십 문화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의 내용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는지 사전 점검 절차가 없어요.

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출산 홍보물·안내책자

이미지와 문구에서 '엄마=돌봄 주체'라는 고정된 가족 그림이 반복돼요.

성별 고정관념을 유발하지 않는 디자인을 고려해야해요



법률혼 중심 지원 설계

여전히 많은 정책이 법적 혼인 부부에게만 열려있어요. 미혼부모, 한부모,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해요.

**꼼꼼히 살펴보고 조그만 더 다듬고 고치면
많은 시민에게 이로운 정책으로 바뀔 수 있어요.**



성평등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좋은 정책이 시민 모두에게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살펴볼 때, 이 세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이 정책,
나도
포함하나요?

출산, 양육,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 그려져
있나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정책인가요?

시민의 관심이 커지면 좋은 정책이 많아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혼·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승화·홍서윤·송민이(2025)

연구보고서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ifwf.or.kr) → 정책연구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